

# 읽기가 쓰기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독서 교육, 독서 오거서 운동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그 동안의 독서 운동이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었다면 ‘독서 오거서(五車書) 운동’은 읽기를 사고력과 논술로 연계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서울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 오거서 운동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김성기(55) 교육과정정책과 과장은 “지금까지 여러 독서 운동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한 이상적인 형태”라고 밝혔다.

이 운동은 각 학교의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해 ‘10분 독서-5분 생각-5분 쓰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침 시간의 짧은 독서를 사고력과 논술 교육으로 연결해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 운동의 강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독서토론 및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다. 이 야심 찬 기획의 주역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과정정책과’와 ‘김 과장’.

“이 운동을 아직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독서가이드북’이 완성되면 나머지 학교들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초·중·고교 학교급별로 20여 명 교사로 구성된 독서교육지원단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 활동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서교육지원단은 그간 독서 교육 활동에 앞장섰던,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독서 운동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과거 독서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2005년부터는 교과와 연계한 독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던 중 올 4월 국회에서 독서진흥법이 통과되고, 생활기록부에 ‘독서이력처리’라는 부분이 생기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독서 운동이 시급해진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책 선정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학교별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각 학교별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책에 대한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게 했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또한 운영비의 5%라는 지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독서 오거서 운동이 아침 독서 외에도 ‘독서캠프, 독서토론 대회, 독서신문 제작, 과주출판문화단지 방문, 북스타트 운동’ 등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래 사회는 지식과 정보 같은 무형의 자산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는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는 책을 통한 안목, 통찰력, 지혜, 간접 경험을 통해 보장될 것입니다. ‘독서 오거서 운동’은 학생들의 지적인 면은 물론 정서적인 면의 균형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을 그런 ‘미래의 인간’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입니다.”